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



발행·편집인 이종휘
편집주간 최재혁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8(부평동4가)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5층
Tel. (051)253-7788 Fax. (051)255-7787
제작·인쇄 사인텔 Tel. (051)245-2337

훈련 집중할 여건부터 만들어 주고 좋은 성적 기대 총동창회 모교 야구부를 뜨겁게 품다



홈쪽 덕아웃에 설치된 2층 락커룸



스텐드에 설치된 입식시계

총동창회와 야구후원회가 모교야구부가 최상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시설공사와 비품 구매를 계속 하면서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 지난 10월 6일까지 운동장 홈쪽 더그아웃에 2층 락커룸(컨테이너) 추가 설치 등 시설보완과 운동장 바닥 배수시설 등의 보수공사를 끝냈다. 야구부 기숙사 실내외 인테리어 보수, 실내 연습장 보수와 냉난방기

등 시설보완 공사도 시행했다. 운동장을 둘러싼 벽면 페인트 보수, 야간 조명등 조작 배전반 외부 설치, 입식 태양광 대형시계 설치, 싱크대 설치, 그물망 타이어 수리와 교체도 이뤄졌다. 훈련에 필요한 타격 연습기 수리 및 추가 2세트 구매(야구후원회가 적극 추진), 볼 자동 공급기(5대)와 속도측정기(2대) 구매, 타석용 시트 구매 등 각종 비품도 사들였다. (공사

가 필요했던 사유 및 명세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 동창회보에 소개할 예정) .향후에는 베이스볼센터, 기숙사, 더그아웃, 락커룸, 운동장 관리를 연간 계약을 통해 연 5회 전문가에게 청소와 관리를 맡기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6월 17일 모교 베이스볼센터 개관을 계기로 모교야구부 시설 일체 점검을 통해 그 필요성을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총동창회와 야구후원회는 모교야구부에 대한 각종 지원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는 너무 확연할 정도로 명분에 그친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진단을 내렸다. 모교 야구부원들의 훈련환경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열악한 상태로 훈련할 수밖에 없었던 실상도 이해하게 되었다. 학교의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예산 확보 과정이 까다로워 훈련환경이 제때 보수 내지 개선되기가 어려웠다고 봤다.

모교 야구부 전광열(44회) 감독은 이번엔 보완된 시설 덕분에 야구부원들의 훈련에 실질적인 큰 도움을 받게 되어 총동창회와 야구후원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고, 경남고 백영선 교장도 같은 심정이라며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했다. 전 감독은 야구부의 경기 및 진학 성적이 다소 부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열악한 훈련환경 때문에 늘 야구부원들에게 말 못할 미안함이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모교 야구부원들도 수개월에 걸친 보수공사로 훈련에 다소 지장은 있었지만 훈련환경이 세심하게 보완되는 과정을 보면서 깊은 감동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며 일치단결하여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더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총동창회와 야구후원회는 모교야구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게 된 점에 큰 보람을 느끼며 야구부원들의 성적 향상을 기원했다.



베이스볼센터 전경

동창회보 광고 문의 환영

▶ 연락처 : 동창회 사무국Tel. 051)253-7788

총동창회장배 기별야구대회개최

동문간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도록~



기별야구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동문들

제53회 총동창회장배 기별야구대회가 10월 7일 낮 12시 모교운동장에서 15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개막식을 거행하고 3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에는 28회부터 56회까지 23개 팀이 출전해 장년부(28회부터 44회까지 팀)와 청년부(45회부터 56회까지 팀)로 나뉘어 대전을 한다.

개회식은 개막선언(기별야구대회 집행위원장 정신·47회)과 국민의례, 내빈소개, 우승기반환(장년부 33회, 청년부 47회), 대회사, 축사, 선서대표 선서,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대회사에서 53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대회가 총동창회산하조직인 경야회, 덕형리그, KN1942야구단, 야구후원회 활동과

별개로 그간 각 기수동기들간, 선후배기간에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서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전제한 뒤, 특히, 올해는 동문들의 노력으로 모교의 숙원 사업인 베이스볼센터를 마침내 건립함으로써 재학생은 물론이고 졸업동문들에게 야구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기쁨과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며 야구명문의 명성에 걸맞게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총동창회 부회장이자 덕형리그 회장인 36회 양호진 동문이 대회사를 대독함)

축사에 나선 경남고 백영선 교장은 학교를 졸업한지 수십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어울리는 동문들이 항상 부럽고, 특히 베이스볼센터 건립과 그 후 이어진 야구부지원 각종 공사 등에 동문들의 진심이 느껴져 전교직원이 감동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

다며 기별야구대회를 통해 동문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개막식 후 점심으로는 즉석에서 만든 샌드위치가 제공되었다. 메뉴를 도시락이 아닌 샌드위치로 준비한 것은 동창회 행사시마다 제공된 도시락의 잔반 뒤처리문제로 학교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는 33회가 27명이 참석하여 최다참가상을 수상하였다. 37회 38회가 2, 3위를 차지해 참가상금을 받았다. 10월 7일과 10월 8일에 치른 경기에서 32회(상대 28회), 38회(상대 34회), 40회(상대 39회), 42회(상대 41회), 44회(상대 37회), 51회(상대 46회), 52회(상대 56회)가 각 1승을 거두고 우승을 향한 순조로운 출발을 하였다.

◇대회협찬 : 박종찬(25회) 100만원, 이종휘(32회) 200만원, 정용운 정현상(이상 32회) 각 20만원, 35회 동기회(35만원), 김병주 김용진 양호진이 창 홍의창(이상 36회) 각 20만원, 허부남(37회) 100만원, 37회동기회 10만원, 김경곤 박태봉 오희진 조석태 한민득(이상 38회) 각 20만원, 남호찬(39회) 100만원, 우영환(40회) 100만원, 김영철 김인수 김정태 전삼록 최영준(이상 41회) 각 20만원, 곽창우(42회) 10만원, 42회동기회임원단 20만원, 정용중(42회) 10만원 및 이가한우상품권 10만원권 2매, 정신(47회) 100만원



총동창회장의 대회사를 대독하고 있는 덕형리그 회장 양호진(36회) 동문



대회 입장식 후, 이벤트경기를 한 경미회와 청마회가 경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별야구대회 대표선서

“경남고등학교 강서캠퍼스가 어떤지요?”

전어축제와 함께한 강서지구 동창회의 신선한 제안



모임에서 김형찬(41회) 강서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서지구동창회는 명지전어축제 마지막 날인 8월 31일 저녁 명지회센타 사상횃집에서 강서구청장인 김형찬(41회) 동문의 초청으로 번개모임을 가졌다.

김형찬 동문은 지난해 구청장선거에서 강서지구 동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도 그동안 감사의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박종찬(25회) 고문께서 총동창회관으로 특별히 초대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에 보답을 못해 늘 송구했었다며 강서구 관내 명지최고축제인 전어축제를 개최하면서 강서구동창회 집행부와 박종찬 고문을 초대해 맛있는 전어회를 한번 대접하고 싶어 번개모임을 개최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 강서구청장으로서 늘어나는 강서구 인구에 비해 제도적인 여건으로 고교신설이 어려움을 겪게되어 부산교육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남고등학교 강서캠퍼스’의 설립을 제안했다면서 부산남고가 강서구로 이전확정됨과 더불어 명문

경남고등학교의 이전은 불가하지만 ‘강서캠퍼스’의 설립은 가능할 수 있다며 당찬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동문들은 김형찬동문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이왕이면 ‘부산여고 강서캠퍼스’도 함께 만들어 최고의 명문고들이 강서구에 유치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김형찬 동문은 주택, 건설, 건축분야의 전문가인만큼 가덕도신항에 대해서도 단지 부산엑스포만을 위한 일시적인 공항의 건설이 아닌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을 갖출 수 있는 공항을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 전문가적인 공약과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며 강서구청장에 당선되었지만 당선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부산 제1의 강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경남중고동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하여 참석자들의 가슴을 뽀뽀하게 만들었다.

이날 모임에서 김택영(26회) 고문은 일본 오염수에 대한 전문가적인 견해와 고조선, 고구려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 논란이 되는 홍범도장군의 인생에 대해 강의(?)가 있었으며, 이병훈(32회) 회장의 고려시대 나옹선사가 남긴 선시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를 들으며 참석자들 모두 한여름밤의 정취를 한껏 즐겼다.

◇참석자 : 김형찬(41회) 강서구청장,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강서지구 명예고문) 김종명(29회 동창회보 전 편집주간) 이병훈(32회) 회장, 김택영(26회) 고문, 조광제(28회), 이수관(38회) 사무국장, 김성준(44회), 박진수(45회), 이진형(46회), 구민수(50회), 이정우 최우영(이상 51회) [김택영 고문의 한겨레치과에 새로 근무하게 된 치과전문의(부친이 경고 11회) 한 분도 같이 참석]

강서지구동창회 야구단의 아름다운 역전패



행사에 참석한 강서지구동창회와 강서구리틀야구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서지구동창회는 9월 3일 매년 후원하는 강서구리틀야구단 후원행사를 하고, 후원행사를 겸하여 강서지구 동창회 야구단과 강서구리틀야구단이 친선경기를 가졌다.

후원행사에서 이병훈(32회) 강서지구동창회장은 후원행사를 계속할 수 있게 도움을 준 회원들에 대한 감사

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강서구리틀야구단의 활약에 격려의 덕담을 하였고, 김택영(26회) 고문은 후원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는 약속과 함께 강서구리틀야구단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가 배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으며, 학부모대표는 강서지구동창회의 후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과 함께 리틀야구단원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각오를 피력하였다.

이어진 친선경기에서 강서지구동창회 야구단은 조광제(28회) 선발투수의 역투속에 초반 5대0 리드를 가져가며 쉽게 승리하는 듯하였으나 체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서히 나타난 강서구 리틀야구단의 저력, 우승 야구단의 강타선에 의해 후원회다운 아름다운 역전패를 당하였다.

경기를 마친 후 참석동문들은 목욕탕으로 이동하여 단체목욕 후 김성규(54회) 동문이 운영하는 손정순 찜닭에서 낚술 뒤풀이를 하였다. 1차 뒤풀이가 마친 후 당구동호회 멤버들은 당구시합으로 모임을 이어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구동창회 최초 해외 역사탐방 행복만끽



여행에 참석한 동문들이 미우다해수욕장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산지구동창회는 8월 26 ~ 27 일 양일간 동문가족과 함께 지구동창회 사상 처음으로 물 건너 일본 대마도로 역사탐방을 다녀왔다. 배로 가는 여행이라 배멀미도 걱정되었지만 아침 일찍 모인 관계로 승선하자마자 모두 잠깐의 숙면을 취하면서 대마도 히타카츠 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 후 노부부가 운영하는 규모가 작은 식당에서 점심으로 덮밥과 우동, 회를 먹고 대마도 청담동으로 불리는 이즈하라 시내를 관광하는 것으로 일본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새벽부터의 출발이고 무더운 날씨로 쉽게 지칠 수도 있었으나, 앞으로 이어질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이동했다.

일본 전통 신사인 '팔번궁 신사'와 사무라이 거리와 불이 번지는 것을 막

아주었다는 돌로 쌓은 방화벽을 둘러 보고 '춘향전' 및 다수의 한국 소설을 최초로 번역한 '나카라이 토스이' 기념관을 방문했다. 기념관은 책과 커피를 즐기는 카페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조선 마지막 비운의 왕주었던 '덕혜옹주 결혼기념비'를 볼 수 있었는데 비석에 새긴 글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너무 흐려서 관리가 안된건지 조금 안타깝기도 했다.

시내 관광 후 숙소로 예약된 아담하고 고즈넉한 대아호텔에 도착했는데 푸른 잔디밭에 마당도 넓고 전망뿐만 아니라 일몰, 동이 뜨는 아침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웠다.

호텔에서의 저녁식사는 삼겹살, 회, 부산에서 준비해간 고추, 상추, 마늘에 한수열 회장이 특별히 강원도에서 공수해 온 김치까지 너무나도 맛있게

잘 먹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쯤 한수열 회장이 인사말에서 대마도 여행을 준비하고 오기까지의 소회를 밝히며 여행에 동참해준 동문과 가족들에게 감사함을 전했고, 무엇보다 지구동창회 최초로 해외 탐방을 가졌다는 자부심에 행복했다며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여행을 함께한 박종찬(25회) 고문은 지구동창회 사상 첫 해외여행을 준비한 남부산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일본에서 구입한 '구보나 만쥬' 술을 찬조했다.

참석한 용마코스 단원들의 선창으로 교가제창을 하면서 공식적인 1차 행사를 마무리했다.

2차는 호텔 마당 벤치에서 소주와 과자, 육포 안주로 목을 축이고 3차는

다시 이즈하라 시내에 있는 이자카야로 이동하였다. 타국에서의 느낌이 좋은 건지 참석자들은 마냥 즐거워했다.

4차는 '스나크'(가라오케), 5차는 마지막 호텔에서의 방술로 마무리했다. 저녁시간 내내 마신 주량임에도 모두들 거뜬한 것이 신기했다.

다음날 대마도 아소만의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에보시타케 전망대에 올랐으며 하산길에 박종찬 고문은 아이스크림과 고로케(도너츠)를 모두에게 사주었다.

마지막 여행지로 일본의 아름다운 100대 해수욕장의 하나인 "미우다해수욕장"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것을 끝으로 대마도 일정을 마무리했다.

◇참석자 : 박종찬(25회) 배우자, 김정현(36회) 김종업+배우자+자녀, 이상학(이상 39회) 배우자, 한수열(40회) 조청래 최윤석(이상 45회) 배우자, 신정일(46회) 김석훈(50회) 배우자+자녀2, 박보순+자녀, 오성진(이상 51회) 장지훈(55회)

◇찬조 :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 100만원 (구로다만쥬+사케 5병+3차 이자카야+아이스크림+고로케+자녀4명 용돈) 이종희(32회) 총동창회장 100만원, 김정현(36회) 남부산 자문위원 20만원, 한민득(38회) 용마골프회 회장 소주 3박스+간판세 3박스, 김종업(39회) 동래·금정지구 사무국장 10만원, 한수열(40회) 남부산 지구 회장 80만원(대형차량변경비+일본출국세+4차 스나크(가라오케)+자녀 3명 용돈), 조청래(45회) 남부산 지구 사무국장 10만원

내년에도 해외여행 구상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산지구동창회는 9월 20일 저녁 6시 30분 비바람이 치는 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용호동소재 '이가한우'에서 24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한수열(40회) 남부산지구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68명의 연회비 납부와 일본 대마도 단체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점에 대한 감사의 인사말을 하였고, 대마도 여행에서 있었던 후일담으로 웃음을 주었으며 여행이 너무나도 재미있었다는 평가에 힘입어 내년 상반기에 2차 해외여행을 준비해보겠다고 하여 참석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기사 5면 넘김〉

지구동창회 회장단 연합회 쏠쏠했던 번개모임

지구동창회 연합회장인 중부산 지구 박종기(28회) 회장의 제안으로 9월 12일 덕천동 소재 구룡성에서 지구동창회 연합회 회장단 번개모임을 가졌다.

3월 모임 이후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라서 그런지 2시간이 넘도록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되었으며 지구동창회 애로사항과 년회비 진행사항, 송년회 등에 대한 각종 의견들이 넘쳐났다.

박종기 연합회장은 어려운 환경인데도 지구동창회에서 역할을 열심히 해주는 것에 감사하였고 총동창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좋은 덕담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모임이라 1차가 아쉬워서 2차 7080으로 이동하여 노래실력도 들을 수 있는 즐거운



지구 동창회장들이 모임을 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간을 가졌다.

1차 경비는 박종기 회장, 2차는 박동열 회장이 찬조하였다.

◇참석자 : 박종기(28회) 중부산 지구 회장, 이병훈(32회) 강서지구 회장, 이윤조(33회) 부산진연제지

구 회장, 박동열(35회) 북부산지구 회장, 한수열(40회) 남부산지구 회장

중부산지구, 모임 정례화로 단결 다져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이 모임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부산지구동창회(회장 28회 박종기)가 조직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박 회장은 금년 취임 이후 2월 총회에서 회칙을 전면 개정한 뒤, 상반기에 조직과 임원을 확정 지었고

아울러 지구동창회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연회비 제도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7월부터

조직활성화를 위한 번개모임을 매월 가지고 있는데, 후배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회의 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 또한 지구(서구, 중구, 영도구, 동구) 내의 동문이 경영하는 음식점을 반드시 모이는 장소로 삼는 원칙도 세웠다.

7월 25일에는 자갈치 부산횃집(48회 권태현 경영)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종휘 총동창회장과 예동해 사무총장 등 18명이 대거 참석하여 오랜만에 즐겁고 활발한 담소를 나눌 수 있었다. 비가 왔던 8월 25일은 중앙동 다물촌(40회 황성현 경영)에서 10명의 회원이 모여 고래고기와 곱창전골로 정담을 이어갔다. 추석을 앞둔 9월 22일에는 후쿠시마 사태로 수산물 시장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자갈치시장 미정횃집(38회 오종현 경영)에서 만났고, 참석한 몇몇 회원들끼리는 10월에 예정된 본 동창회 창립 10주년 행사를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4면 기사받음>

최고참 정량부(17회) 동문과 임민호(24회) 동문의 간단한 인사말과 4명의 신입회원(41회 문태욱 47회 장순재 59회 김성수 67회 허성준)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식사 후 교가제창(용마코러스 선창)으로 1차를 마무리하고 2차는 4층 루프탑으로 이동해서 맥주와 명태포 안주로 못다한 대마도 여행 얘기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모임은 3차까지 이어졌는데 2차는 남부산지구 한수열 회장이 3차

는 빌레브센트로 상가 ‘발리다 포차’에서 김정헌 동문(36회, 남부산지구 자문위원)이 전액 찬조했다.

◇참석자 : 정량부(17회) 임민호(24회) 김종만(33회) 김정헌(36회) 김용철 한수열(이상 40회) 김동원

문태욱(이상 41회) 김남표 박동식 정용중(이상 42회) 조청래 최윤석 최재근(이상 45회) 신정일(46회) 장순재 정민호(이상 47회) 김석훈(50회) 문희규(53회) 정준섭(54회) 장지훈(55회) 김현운(58회) 김성수(59회) 허성준(67회)

해운대지구동창회 명사초청특강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병수(25회) 동문

해운대지구동창회는 8월 21일 저녁 6시 해운대 마리나 블루키친에서 명사초청특강을 개최하였다.

초청된 명사는 서병수(25회) 국회의원이고, '부산의 미래와 동문들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이 실시되었다.

서 동문은 부산2030EXPO 특사자격으로 최근 아프리카 가나 및 나이지리아를 다녀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EXPO회원국 등록비용대납을 통하여 회원국을 늘이는 등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일찍 시작하여 최종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우나 그 결과를 떠나 유치활동자체가 대한민국과 부산을 전세계에 알리는 과정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강연 후 참가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한민국의 출산율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교육시스템에 큰 변화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였고, 인생의 성공비결은 철저한 준비와 남들보다 반발짝 앞서 행동하는 것이라며 동문들의 선전을 기원하였다.

◇참석자:배대결 윤기갑(이상 13회) 김화옥(14회) 신정아 이견우(이상 17회) 이춘만(19회) 김인구(24회) 서병수 송정규 박광용(이상 25회) 조만석 김태

용(이상 26회) 이영희(28회) 박봉구 사공운곤 박동혁(29회) 함진홍(30회) 이성업 김중근(이상 34회) 정운희 최재혁 양호진(이상 36회) 박상현(37회) 김태호(38회) 이준영 윤원욱(이상 39회) 김용철(40회) 정현화 김종식 김대영(이상 43회) 조청현(44회) 권우일(45회) 전상혁(48회) 이충현(49회) 오유준(50회) 김영태(51회) 양현승(52회) 김상훈(54회) 김준태 전영수(이상 68회) 남지원(해운대구의회 운영위원장) 박수복(북부산상공회의소 부의장) 김효주(안내)

재호치민동창회 정기모임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9월 19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푸미흥 부뚜막에서 재호치민동창회

정기모임을 가졌다. 거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개최된

모임이었지만 회원들 대부분이 참석하였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은 그동안 지내온 얘기며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한호(36회·부회장) 동문의 힘있는 지원으로 1차를 가볍게 마무리하고 자리를 옮겨 정담을 이어갔다. 2차는 김성준(33회·회장) 동문이 전액 찬조하였다.

재호치민동창회의 영원한 고문 박

철완(20회) 동문의 참석을 모두들 애타게 기다렸지만 끝내 자리를 채우지 못하였다. 폭우로 인한 도로침수로 참석이 어려웠다고 했다. 안타까운 것은 조일래(30회) 동문의 투병소식이 있어 동문들은 조 동문의 쾌차하기를 기원했다.

◇참석자:김성준 목종훈(이상 33회) 이한호(36회) 정진훈(39회) 이정훈(52회) 손정구(58회)

현대차 경남고 동문회 9월 모임

현대차 경남고 동문회는 9월 6일 오후 6시 7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이정표원조추어탕에서 9월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김상갑(34회) 이효성(35회) 정성훈(38회) 유종아(40회) 정찬홍(43회) 김상조 김정민(이상 52회)



기부자 리스트

수시 기부 명칭 부여자 협찬 기여도 통계

협찬금은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통계에 넣습니다.

다이아몬드 5억원이상 1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29 김 대 욱 5억3500만원 310만원

루비 3억원이상 1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25 박 종 찬 2억6140만원 4250만원

사파이어 2억원이상 0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에메랄드 1억원이상 7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11 오 완 수 1억원
2 23 김 영 기 1억2300만원
3 25 김 진 철 1억1500만원
4 30 최 우 철 1억1200만원
5 33 박 명 진 1억400만원
6 37 허 부 남 5750만원 4340만원
7 54 하 병 호 1억원

플래티늄 5천만원이상 14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13 이 경 재 5100만원
2 16 송 규 정 5700만원 100만원
3 17 최 만 식 5000만원
4 18 김 길 제 5200만원
5 19 이 부 성 5000만원
6 22 유 재 진 6625만원 1000만원
7 24 박 흥 구 5000만원
8 24 전 용 우 5000만원
9 26 박 상 호 6750만원 100만원
10 30 김 현 태 5470만원
11 30 윤 성 덕 6450만원
12 32 이 중 휘 2310만원 6200만원
13 38 권 두 성 7350만원
14 40 우 영 환 4100만원 1000만원

골드 3천만원이상 20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9 조동훈(미) 3056만원 100만원
2 15 김 경 일 4000만원
3 16 엄 중 원 3000만원
4 19 이 용 흥 4150만원
5 20 박 용 덕 3320만원
6 21 손석보(미) 3064만원
7 23 김 중 광 3100만원
8 25 서 병 수 3000만원
9 27 박 치 호 4000만원
10 28 백 영 호 3350만원 1000만원
11 29 박 성 철 3500만원
12 31 박 종 호 3550만원 100만원
13 31 홍 성 수 3370만원
14 33 김 법 영 4430만원
15 35 장 인 화 3400만원 100만원
16 36 박 진 용 3250만원
17 38 정 재 형 3140만원
18 39 박 근 태 3270만원 100만원
19 44 탁 정 환 3530만원 240만원
20 47 정 신 3690만원 118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31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3 송 두 호 1000만원
2 8 박 동 렬 1000만원
3 10 조 양 제 1000만원
4 12 남 기 용 1000만원
5 12 이 재 원 1000만원
6 15 손 부 흥 1630만원 20만원
7 15 천 신 일 2430만원
8 15 한 해 수 1000만원
9 17 이 세 복 1000만원
10 17 최 성 호 1000만원
11 19 황 태 원 1000만원
12 20 김 형 오 100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31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3 20 박 병 철 500만원 1000만원
14 20 허 규 판 1000만원
15 21 강 창 수 1730만원
16 21 전 재 호 1000만원
17 22 김 학 군 1000만원
18 22 박 재 상 2000만원
19 22 장 성 덕 1000만원
20 22 장 성 복 1000만원
21 22 허 범 도 1000만원
22 25 김 익 수 950만원 50만원
23 28 노 영 현 1500만원
24 30 정 경 목 1000만원
25 33 이 순 환 1000만원
26 33 최 웅 남 2260만원 400만원
27 34 박 철 응 1070만원
28 34 이 진 호 2130만원
29 41 이 양 걸 1000만원
30 41 최 영 준 540만원 520만원
31 55 전 민 기 800만원 20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4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 7 김 삼 현 500만원
2 8 김 봉 길 500만원
3 17 김 동 수 500만원
4 17 윤 성 옥 500만원
5 17 조 증 언 500만원
6 19 김 봉 호 600만원
7 19 장 흥 의 600만원
8 20 김 태 영 500만원
9 23 이 병 찬 550만원
10 23 이 상 수 770만원
11 25 박 세 철 630만원
12 25 손 기 천 550만원
13 25 송 정 규 58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3명 2023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14 25 이 명 철 710만원
15 26 김 상 현 500만원
16 26 박 재 욱 500만원
17 26 박 호 대 500만원
18 26 하 원 규 500만원
19 27 김 태 우 550만원
20 27 문 두 찬 630만원
21 28 구 영 소 500만원
22 28 이 원 철 950만원
23 28 임 익 성 500만원
24 28 최 강 호 500만원
25 29 이 석 조 600만원
26 30 김 해 곤 700만원
27 30 윤 인 태 630만원
28 30 이 명 건 530만원 50만원
29 30 이 학 수 700만원
30 30 허정택(미) 615만원
31 31 남 기 태 710만원
32 31 류 명 석 780만원
33 31 오 민 일 650만원
34 31 이 병 태 650만원
35 31 정 철 수 510만원
36 34 이 재 완 550만원
37 36 양 호 진 20만원 620만원
38 39 백 기 현 890만원
39 41 김 정 태 510만원
40 44 안 병 규 780만원 100만원
41 45 김 상 수 360만원 150만원
42 45 조 태 성 500만원 40만원
43 52 김 민 철 250만원 250만원
44 64 표 종 빈 500만원

<2023년 9월 25일 기준>



모교 및 총동창회 사랑기금 기부자 참여 현황

(단위 : 만원)

Table with 4 columns: Individual Donors (개인), Group Donors (단체), Individual Donors (개인), and Group Donors (단체). Includes sub-totals for '개인합계' (114,720), '동기회' (3,862), and '단체 합계' (127,252).

모교사랑기금 계좌 안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경우: 부산은행 101-2083-2443-05 경남중고 총동창회 이종휘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부산은행 029-01-030712-1 (재)타음마정학회 이병찬

올해는 기필코 모교의 명성을 지키겠다

경남고 OB팀 노브랜드배 고교동창야구대회 출전



출정식에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브랜드배 고교동창야구대회를 겨냥하여 모교출신 동문들로 결성된 KN1942야구단을 주축으로 한 경남고 OB팀은 8월 27일 오후 7시 보수동 동화반점에서 2023년 노브랜드배 고교동창야구대회 출정식을 가졌다. 경남고 OB팀 강훈(41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이종휘 총동창회장의 인사말 그리고 박종찬 고문의 격려사가 이었다. 이어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황정후(41회) 감독의 출사표, 서정민(47회) 주장의 각오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 및 사모님, 이종휘 총동창회장, 예동해(이상 32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양호진(36회) 덕형리그 회장, 허부남(37회) 집행위부회장, 김경곤(3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우영환 KN1942 야구단 단장, 한수열(이상 40회) 남부산지구 회장, 김신욱(41회), 김경진(44회) KN1942방송국 제작국장, 조청래(45회) 남부산지구 사무국장, 정신(47회) 경야회 회장

◇참석선수단 : 감독 - 황정후(41회), 코치 - 김정현(50회) 이정민(52회), 주장 - 서정민(47회), 선수 - 강훈 서상대 (이상 41회) 손창오(45회),

서정민 이호정 장순재 정신(이상 47회) 손인호(48회) 김민기(49회) 하병오(53회) 김현종(60회) 김민하(61회) 남재울(69회) 송재혁(72회)

◇출정격려금 : 박종찬 50만원, 김용희 50만원, 양호진 100만원, 허부남 100만원, 정신 30만원, 야구후원회 200만원

한편, KN1942야구단은 8월 20일 부산고등학교 청마팀에 6대 13으로 역전승한 바 있다.

이날 경기는 낮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한 무더위와 강한 햇빛아래서 치러졌는데 황정후 감독 이하 모든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승리하겠다는 일념하에 경기에 집중하였고 탈진에 육박하는 체력을 끝까지 부여잡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날 경기에 김민기(49회) 동문이 노브랜드배 고교동창야구대회 대비 주력투수로 컨디션 점검차 선발등판하여 안정된 제구로 2이닝을 잘 마무리해 주었고, 포수 하병오(53회) 동문이 그동안 많은 연습을 통해 실력향상이 되어 선발 3이닝동안 안방을 지켜주었으며, 하상운(52회) 동문이 리그 첫 투수등판으로 이날 경기에 승

교를 상대하여 7대 4로 승리하였다.

이날 경기에서 경남고 OB팀은 경기시작시간 2시간 전에 야구장에 도착하여 서정민 주장 주도하에 각자 몸을 푸는 성실함을 보여주었고, 경기시작직전 황정후 감독은 선발라인업을 발표하며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주의할 점을 전달하였다.

동래고등학교는 쌍방울 출신 10승 투수인 최정환 선수를 선발로 내세워 120km초반대 구속으로 우리 팀 상위 타선을 제압하려고 하였으나 우리 타선들은 침착한 대응을 하였고, 결정적으로 남재울 동문과 장순재(47회) 동문의 대형홈런으로 7점을 뽑아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김동현(50회) 동문의 안정된 수비가 돋보였고, 선발투수 김민기 동문은 작년 노브랜드대회와 올해 경기로 11이닝 무실점이라는 진귀한 기록을 세우며 선발투수에 임무를 무사히 마친 바 있으며 뒤이어 등판한 김재성(42회) 동문은 50대 중반의 나이라고는 믿기 힘든 120km대의 강속구와 현란한 변화구로 상대 타자를 제압해 나갔으며 윤형배(41회) 동문의 깔끔한 마무리 투수로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노브랜드배 대회 출전준비를 멋지게 마무리하였다.

리투수의 영예를 가져갔다.

남재울(69회) 동문과 이정민(52회) 동문도 깔끔한 투구로 팀이 승리하는데 일조하였다.

이날 공격은 4회까지 앞치락 뒤치락 하며 시소 경기를 이어갔는데 손인호(48회) 동문이 1회 투런홈런을, 4회 2사만루 상황에서 김정현(50회) 동문의 우중간을 가르는 싹쓸이 2루타가 승기를 가져왔다.

또한, 경남고 OB팀은 9월 24일 오후 4시 부산고등학교 야구장에서 있었던 2023년 노브랜드배 고교동창야구대회 최종예선전에서 동래고등학교

경남고 야구부 슬리퍼 지원

윤상훈 동문(44회·동기회장)과 구자삼 동문(45회·동기회 고문)이 함께 친목 모임을 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리복 정선욱 대표가 8월 18일 두 동문을 통해 경남고 야구부에 리복 슬리퍼 63세트(200만원 상당)를

지원해 주었다. 정선욱 대표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모교야구부 후원에 힘을 보태주기로 약속하였다. 두 동문은 모교 동문을 넘어 지역사회에서도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경남고 OB팀이 최종예선전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구자삼 동문과 윤상훈 동문

제3회 경남중·고총동창회장배

리틀야구대회 개최



개회식을 마치고 참석한 동문 및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와 경야회가 주관하는 제3회 경남중·고총동창회장배 리틀야구대회가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 리틀야구장에서 열전에 돌입했다. 경남중·고 야구후원회와 하하병원(대표원장 54회 하병호)을 비롯한 경남중·고동문들이 후원하는 대회다.

수영구리틀야구단을 비롯 부산 시내 13개 리틀야구단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대회사에서 리틀야구대회는 경남중·고야구의 옛 명성을 기리는 것은 물론, 어린 선수들에게 시합기회 제공, 야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우수선수들이 진학할 때 경남중·고를 우선 고려하는 등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의미 모두에서 경남중·고야구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대회가 앞으로도 꾸준히 개최되고 외연도 확장되어 경남중·고야구발전에 든든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부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이자 경야회 회장인 정신(47회) 동문과 경남중·고 야구후원회 실무위원장인 조용철(38회) 동문은 출전하는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하는 축사를 하였다.

8월 29일 화요일에 연제구리틀야구단과 서구리틀야구단의 결승전과 폐막식을 진행되었는데 4회까지 3:3의 팽팽한 접전 끝에 5회에 균형이 깨지며 연제구리틀야구단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서구리틀야구단이 준우승을, 해운대리틀야구단과 강서구리틀야구단이 공동 3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종휘 총동창회장이 입상팀 선수들에게 우승기와 트로피, 상장을 수여하였고, 이어서 부산야구소프트볼협회장이자 경야회 정신 회장이 개인상 시상을 수여했다.

연제구리틀야구단 원태광 감독에게 감독상이 수여되었다. 우승팀에게는 하하병원에서 드림베이스볼아카데미의 3D모션측정 상품권을 전원에게 지급하고, 경남고 후원의 밤(OB:YB)초

대권도 지급하였다.

이종휘 총동창회장의 인사말로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하게 되었다.

◇대회를 후원해주신 분들

(개인) 박총찬(25회) 100만원, 이종휘(32회) 100만원, 허부남 김종휘(이상 37회) 각 100만원, 조용철(38회) 50만원, 우영환(40회) 100만원, 김대영(43회) 30만원, 임정훈 탁정환 안병규(이상 44회) 각 50만원, 김상수(45회)

50만원, 정신(47회) 100만원, 김동주 50만원, 정유석(이상 51회) 30만원, 김현진 10만원, 김민철(이상 52회) 50만원, 김상욱 30만원, 송승준 50만원, 이상훈(이상 53회) 20만원, 김현달 20만원, 이대호(이상 55회) 커피차 400인분, 심세준(56회) 20만원, 이재곤(62회) 30만원

(단체) 총동창회 200만원, 경남중·고 야구후원회 200만원, 청마회 20만원, 덕형리그 20만원, 경미회 30만원



대회 입상자들에게 우승기, 우승컵, 상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격려금 전달

총동창회는 8월 18일 제51회 봉황대기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하는 경남고 야구부의 선전을 기원하며 경남고 베이스볼센터에서 전광열(44회) 감독에게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모교 선수들과 코치진 그리고 전광열 감독은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으며 이날 허부남(37회) 총동창회 집행위부회장도 선수 및 코

치진을 위해 팔빙수 50개를 주문하여 격려하였다.

한편 경남고 야구부는 봉황대기 8강전에서 대구고에 아쉽게 패하고 말았다.

◇참석자 : 예동해(32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허부남(37회) 총동창회 집행위부회장, 김경곤 총동창회 사무국장, 전광열(44회) 야구부 감독



격려금을 전달하는 예동해 사무총장과 전광열 감독

천종호 판사 북토크 콘서트



9월 15일 '호통 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가 경남고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천종호 판사의 저서를 읽

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강 후에는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과 책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이 있었다.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천종호 판사와 함께 사회적 이슈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소통하고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꿈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

며, 나아가 사회적 선과 정의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법 속에서 더 나은 사회를 실현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경남고 한마음 Day(마음회복 캠페인)

정기 고사를 앞두고 연속된 긴장과 수행평가에 지친 학생들의 불편한 마음과 괴로움을 덜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경남고 한마음 데이' 행사가 9월 10일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경험했을 힘겨운 감정을 털어내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마음회복 캠페인으로, 자신의 스트레스

지수를 점검하거나 OX 퀴즈 맞추기, 포춘 쿠키와 네잎클로버 받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된 행사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 건강을 점검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피하고 싶었던 상황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마음을 추스르면서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고 마음 건강을 다독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교육과정 상담실개소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안내하고 상담을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로 『교육과정 상담실』이 9월 22일 경남고 덕형관 1층에 개소되었다. 이 공간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상담,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전시하기 위한 공

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과정에 대해 관련 부서의 상담과 지도를 받으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진로와 연계되는 교육과정 및 학습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게 될 것이다.



경남중 인성체험활동

경남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9월 18일~19일(1박 2일)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생인성교육원에서 인성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반 전체 협력 활동(금정성 도미노 쌓기), 도전활동(어드벤처타워, 협동컬링, 전략놀이(전략투호), 협동놀이(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라) 등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 체험을 통해 바른 인성 형성에 이바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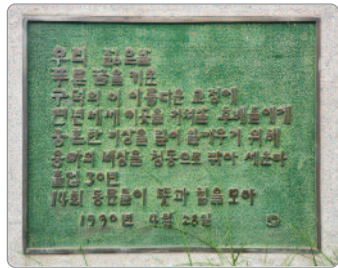
경남중 051영화제 출품 우수상 수상

경남중학교 학생들이 사회복지 관련 스토리가 담긴 '어떻게 가지?'라는 영화작품으로 '051영화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영화제 시상식 및 시사회는 지난 9월 8일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렸다.





시가 있는 교정 <3>



용마상

신령한 용은
힘찬 말이 되어 달린다

어질고 지혜롭고
용맹하고 날래다

용마는 하늘을 난다
푸른 바다를 뚫다

높은 기상으로
꿈을 편다
아름다운 신화를 쓴다

1981년 2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을 마쳐갈 즈음, 한 해 위 기수인 35회
는 졸업기념으로 교정에 용마상을 세
웠다. 3년 내내 공부를 잘하고 대학입
시도 성공적으로 마친 선배들이 용마
상까지 세웠으니 마냥 부럽기만 했다.
졸업생들이 1인당 3천원을 내어서
146만원을 조성하고, 동창회에서 164
만원을 지원하여 총 310만원의 기금
으로 건립했다.

약 10년이 지난 1990년 4월, 14회
선배들이 졸업 30주년 행사기념으로
새로운 용마상을 제작하였다. 처음
용마상은 고등학생이 용돈을 아껴 모
은 돈이었기에 부조상으로 만들었으
나, 사회에 든든하게 자리잡은 14회
선배들은 예산을 더 들일 수 있었다.
새로운 용마상은 2m 높이의 좌대 위
에 청동으로 주물된 3m 높이의 용마
가 날개를 펼치고 웅비하는 형상이다.

교문 앞에 있던 처음 용마상은 국산
기념관 앞으로 옮기고, 새로운 용마
상을 교문 앞에 세웠다. 예나 지금이
나 교문 앞에 자리잡은 용마상은 등
교하는 학생들을 힘찬 기상으로 맞이
하고 있다. (이상 '경남중고등학교 80
년사' 참고)

고등학교 때 등교길은 숨을 헉헉거
리며 올라야 하는 가파른 오르막이었
다.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난다. 등교

마감시간 7시 40분. 호랑이처럼 교문
을 지키고선 학생부 선생님을 아슬아
슬하게 통과하여 턱 밑까지 찬 숨을
고르고 나면 눈앞에 펼쳐지는 덕형관
과 용마상, 푸른 나무에 쌓인 건물들.
우리는 구덕골의 정기 속에서 용마의
신화와 함께 학교를 다녔다. 멋진 학
창시절이었고, 지금도 가슴 깊이 새겨
져 있는 힘찬 용마의 기상이다.

김철원(36회)동창회보 편집위원



부지



건물

부산시 최고 중심지
신축부지 및 건물 매각 공고

- 1. 부지 연산역 근접, 대로변 코너(사옥, 병원 및 호텔 신축 부지)
대지: 2,713㎡ (820평), 건물: 1,862㎡ (563평)
매도호가: 410억원
- 2. 건물 연산동, 대로변 소재
대지: 2,698㎡ (816평), 건물: 6,375㎡ (1,928평)
보: 4억원, 임: 6,570만원(테슬라 외 다수 업체 임차, 주차 75대 가능)
매도호가: 230억원

본건 매입에 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파인텍코리아
FINETECH KOREA Co., Ltd

대표 김완일(21회)

010- 4312-2020 h7030h@gmail.com

덕경회 정기 모임 및 제2차 명사초청 강연회

동문기업인들 모임인 덕경회는 8월 28일 저녁 6시 코모도호텔 15층 오륙도 홀에서 정기 모임 및 제2차 명사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박종찬(25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공한 사람일수록 노블레스오블리주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성공한 선배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상황이 안타깝다며 성공한 선배들이 모임에 동참하여 후배기수들에게 성공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줄 것과 성공한 CEO가 되기 위해서는 스피치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며 오늘 강연 내용을 좋은 기회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강사로 초빙된 정시운 아나운서에 의해 “CEO스피치 매력있게 말하기”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정시운 아나운서는 영남대 미대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할 때 교직을 이수하고 부산대 국제영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중학교에서 3년간 영어교사로 지낸 이력이 있고, 그 후 한국방송진행자연합회(KFBA)회원으로 국제행사MC, 통역, 의전 등에 프리랜서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6개 외국어



덕경회 회원들이 모임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시운 아나운서는 사람의 첫인상은 5초 내에 결정이 되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30번의 반복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첫인상을 좋게 하는 이미지브랜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말을 할 때는 복식호흡에 의한 발성을 하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5감을 모두 동원하여 진심으로 표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시운 아나운서는 많은 무대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소 강렬한 인상의 덕경회 회원들 앞에서 조금은 긴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내 프로다운 진행 실력을 보여주었고 그에

상응하는 회원들의 화기애애한 리액션으로 강연은 50분간 즐겁게 잘 마무리 되었다.

초청 강연을 마치고, 회원들은 시내(광복동)주점으로 이동하여 훈훈한 뒤풀이 회식을 하였는데 박종찬 회장이 70만원, 백운창(34회)회원과 김상수(45회)회원이 각 30만원을 찬조 해주었다.

◇참석자 : 박종찬(25회), 이종휘(32회), 이동근(33회), 백운창(34회), 김재성(35회), 양호진 이창(이상 36회), 허부남(37회), 조용철(38회), 백기현(39회), 김춘강 임태영(이상 40회), 김영철 윤종진(이상 41회), 강병규(43회), 탁정환(44회), 구자삼 권우일 김상수



명사로 초청된 정시운 아나운서

조태성 최상배(이상 45회), 이재광(46회), 백광선(50회), 정유석(51회), 김민철(52회), 김문건(53회), 이재필 조종완(이상 54회), 총동창회 사무국 예동해(32회)사무총장, 최재혁(36회)편집주간, 김경곤(38회)사무국장, 외빈 메디올포 정수아 차장



용건회 9월 정기모임

용건회는 9월 14일 서면 ‘대서양회 참치’에서 9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용건회 정현상 회장(32회)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간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보다 발전적인 직능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 중 최고참 기수인 류종우(18회) 고문은 격려사를 통해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용건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기타 토의시간에 회원들로부터 기관 소속 현역 동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2023년도 남은 기간에 예정된 동문사업장 방문과 용건회 창립 31주년 기념 등산대회 행사에 대한 안내와

재정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신입회원인 서동범(32회), 이준영(39회), 이승철, 심재홍(이상 44회) 회원에 대한 소개와 인사가 있었다.

행사의 마지막으로 이영학(26회) 고문과 김문건(53회) 회원의 건배사가 있었다.

◇참석자 : 류종우(18회) 이영학(26회) 정순길(30회) 류명석(31회) 서동범 정현상(이상 32회) 최웅남(33회) 김중근 박철웅 손병걸(이상 34회) 이준영(39회) 김신욱 김인수 전삼록 한창희 황정후(이상 41회) 장일천(42회) 박형규 전순표(이상 43회) 이승철 심재홍(이상 44회) 권우일 조청래(이상 45회) 이충현(49회) 김문건(53회) 전명재(67회)

경미회 명예회장배 제3회 스크린 골프대회

경미회는 8월 19일 명예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를 골프존 파크 다대나이스 골프점(44회 배봉건 운영)에서 개최하였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개인전으로, 개인전 후 6시까지 진행된 단체전에서 선후배 간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대회 뒤풀이 식사는 근처 “하임축산”에서 진행하였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의 대회축사가 있었고 경미회 김대영(43회) 회장과 최영준(41회) 전 회장, 마지막으로 한수열(40회) 남부산지구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참석한 회원들은 대회를 충분히 즐기고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하루를 만들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준 박종찬(25회) 명예회장과 이종휘 총동창회장에게 특별한 감사함을 표시하였다.

◆개인전 시상 내역◆

지상 상품권 10만원 : 김지운(52회), 풀지지친구상 상품권 10만원 : 서승진(46회), 룡기스트 상품권 10만원 : 예동해(32회), 니어리스트 상품권 10

만원 : 장지훈(55회), 스트로크 준우승 상품권 10만원 : 전삼록(41회), 스트로크 우승 상품권 20만원 : 박성영(53회)

◆단체전 시상 내역◆

풀지상 현금 10만원 : 문화체육분과, 풀지 친구상 현금 10만원 : 미래발전분과, 최다 참석 분과 현금 10만원 : 친목교류분과, 3위 현금 20만원 : 경미회 집행부, 준우승 현금 30만원 : 대외협력분과, 우승 현금 50만원 : 친목교류분과

◆경품추첨 당첨◆

PXG 드라이브 최영준(41회)

◇찬조 : 박종찬(25회) 대회상금 200만원, 이종휘(32회) 현금 50만원, 이창(36회)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3더즌, 한수열(40회) 남부산지구 회장 식사(2부 뒤풀이) 20만원, 최영준(41회) 골프공 8더즌+테일러메이드 신형 스트립 볼, 김대영(43회) PXG 드라이브 1점+롯데상품권 20만원, 배봉건(44회) 여성용 골프모자(볼빅) 30개, 이재광 현금 30만원, 최원석신세계 상품권 30만원(이상 46회)

용마산악회 경주 남산 정기산행

용마산악회(회장 서석권·35회)는 9월 10일 13회 장영길 동문 가족으로 특별히 참석한 이정숙 님으로부터 45회 동문에 이르기까지 동문과 동문가족 총 74명이 참여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산전체에 마애불과 불상 그리고 불탑 등 불교 유적이 산재한 경주 남산으로 2023년 제3차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르고 청명한 초가을의 날씨 속에 참가자들은 오전 9시 부산진역에 집결해서 버스로 출발하여 10시 30분 산행 들머리인 삼릉주차장에 도착했다. 산행직전에 현 집행부 소개와 함께 서석권 회장으로 부터 행사참석에 대한 감사와 안전산행을 당부하는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서 단체 기념촬영 후 각 기수별 기념촬영을 마치고 오전 11시 예정대로 산행이 시작되었다.

이번 산행은 A코스(삼릉~금오봉~약수골 :약 4.1km / 3시간 30분)와 B코스(삼릉~금오봉~용장 공용주차장 :약 6.5km-4시간 30분) 나누어 진행되었으나 2명을 제외한 대부



산악회 회원들이 등반 직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분의 참가자들이 예정된 오후 3시 30분 B코스로 안전하게 하산하여 산행을 마쳤다.

이날 산행에는 서정환(28회) 경불회 사무국장이 동기들과 참석하여 유적지 마다 1일 문화해설사로 수고해 주었다.

산행을 마치고 여유있게 목욕을 즐기며 산행의 땀을 말끔히 씻고 오후 5시 식당에 도착하여 산행으로 소모한 체력을 오리불고기로 보충하며 정담과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였다.

연회를 마치고 부산행 버스에 오르기 전 주차장에서 후라 경고와 응원을 불렀고 교가제창으로 이날의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참석자 : 이정숙(13회 장영길 가족) 김구화 노태호 서보민 옥동훈 이창훈 이태근 하동문 황근태(이상 25회) 김경준 김이청 김정유 박재훈 서정환 이인재 조영제 허남식(이상 28회) 서민석 정용하 외 1명(이상 30회) 김판덕 김학현 김호성 박경수 안용모 이기범 이승진 천장호 외 3명(이

상 31회) 김미란 김종만 윤서현 김미경 남경태(이상 33회) 김길호 류인수 서석권 윤애덕 신동해 오문세 이인욱 외 1명 이현수 부부 최금희(이상 35회) 이동희 정병기 최상도(이상 36회) 강영재 외 1명(아들) 윤태훤 탁낙준 이미림(이상 37회) 백기현 윤원욱 홍광희(이상 39회) 강훈 김봉준 김신욱 부부 류지섭 안광근 윤성환 이상배 이종민 김기영 최호열 손미정(이상 41회) 김성준 부부(44회) 손창오 조청래(이상 45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 주세요

용마코러스가 창단 10주년기념 제7회 정기연주회를 총동창회 주최로 오는 10월 28일 저녁 6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개최한다.

용마코러스는 17회 선배님부터 60회 후배까지 세대를 뛰어넘는 동문들이 매주 화요일 저녁 바쁜 일상을 멈추고 배움과 수련의 뜨거운 시간을 함께 한지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용마코러스는 그동안 전문 성악가에 버금가는 단원들을 많이 배출하였을뿐아니라 이태석 신부 추모음악회 참여 등 다양한 음악활동으로 명실공히 모교와 동문들의 품격을 한층 고양시켜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창단 10주년을 맞이한 용마코러스는 아마추어의 외피를 벗고 더 많이, 더 넓게, 더 따뜻하게, 그리고 한층 더 강한 감동을 줄수 있는 합창단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뜨거운 여름을 헛과일로 한가득 담아내듯 제7회 정기연주회를 통하여 괄목상대하게 성장한 면모를 알차고 알뜰하게 보여 주려고 한다. 사무엘울만이 청춘을 예찬하듯, 깊어가는 가을밤에 멋진 동문들이 한목소리로 만들어내는 음악의 향연은 보는 이들에게 벅찬 감동을 줄 것으로 확신된다.

합창은 시간에 기대어 I, II, III 파트로 진행되며 합창 사이사이에 FAST & FUTURE, 경남고재학생합창단, 양상블 공연으로 SUS4 & DPUM 공연이 이어진다. 공연은 무료이며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기독교동문회 임원들의 모교 방문(기독교동문회 초대 고문 김영삼 대통령 흉상 앞에서)

기독교동문회 정기모임

기독교동문회(회장 31회 정원규)는 11월 27일(월) 18시 이비스엠배서더 호텔 부산시티센터점에서 이재철(21회) 목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설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002년故이요셉(15회) 회장을 중심으로 “한 동문 돌아보고 한 동문 구원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출범한 기독교동문회는 부산 유일의 학교 단위 기독교동문 모임으로 현재 5회에서 70회에 이르기까지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동문회는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동문선교활동을 비롯하여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노숙자와 재소자 자활 사역을 돕고 모교의 어려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걸어온 스무 해의 발자취를

「경남중·고기독교동문회 20년사」란 제목의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발간하게 되었다. 책은 총 5장으로 편집되어 있다. 첫장 시작(Birth)은 모교 경남중·고등학교의 개교 과정과 부산기독교의 씨앗 및 기독교동문회의 출범을, 2장 역사(History)는 1회기부터 20회기까지 회기별 활동을, 3장 빛과 소금(Light & Salt)에서는 낮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며 살아온 회원들의 사역들을, 4장 공동체(Community)는 기수별 스케치와 간증을, 5장 미래(Vision)에서는 앙케트를 바탕으로 기독교동문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책을 받아 보고 싶은 동문은 김대현 총무(010-9890-3235)에게 연락하면 배송된다.



정기연주회 포스터

동기회 및 동호회

16회 동기회 = 9월 만남의 장



9월 13일 서면 갈비곳간에서 '9월 만남의 장' 모임을 가졌다.

권복술 동기가 모임비용을 전체적으로 찬조하였고, 바쁜 일정에도 이치호 동기(재경 기후회장)가 참석하여 서울 소식을 전해주었으며 윤세진 동기가 천국술 1병을 찬조했다.

참석한 동기들은 모임에 나오는 동기와 마시는 주량이 모임을 할 때마다 점점 줄어 드는 것이 안타깝지만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것을 서로 응원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강상권 강종국 김인국 김한선 박기용 박민소 박영수 서고명 서태복 손송방 안국정 윤세진 이겸일 이명수(밀양) 이방소 이양근 이영일 이종철 이치호(서울) 장사충 정영일 정우광 주기민 최정일 하주열 홍정길

일육산악회 = 정기산행



일육산악회는 8월 20일 다대포 물운대 일원~다대 진동현, 수호각, 정운공 순의비를 둘러보고 백두봉삼계탕으로 오찬 후 해산하였다. 9월 4일에는 민주중앙공원에 모여 석탑, 옥천약수터를 거쳐 자갈치 명문식당에서 전어회 오찬(최정일 제공)을 마치고 해산하였다.

◇참석자:(8월 20일) 강종국 김한선 서고명 서태복 부부 손송방 안국정 부부 이겸일 부부 정신극 최정일 (9월 4일) 강종국 김한선 서고명 서태복 부부 손송방 안국정 부부 이겸일 부부 정우광 최정일

17회 산악회 = 제1327차 정기산행



9월 10일 경교 교정 앞에 10시 7명이 모였다. 늘

20회 월남전우회 = 월남참전기념관 방문



월남전우회는 8월 2일에 모여 결정한 월남과병용사 만남의 장소 방문을 9월 20일 실행하였다.

비 예보가 있었는데도 일정 연기없이 실행하는 다수의 의견에 힘입어 8시 30분 종합운동장역을 출발하여 화천 목적지에 11시경 도착하여 참전 기념관을 관람하고 전사자 명단에 있는 우리 동기 차병규의 이름을 확인하고 잠시 회상에 빠졌다.

월남에서 차병규의 헬기 추락사고를 직접 목격한 신용완 전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못피우고 떠난 차병규 전우에게 애도를 표했다.

전시관 관람후 모형 마을 및 구찌터널을 관람하였다.

우리가 50여년 전 훈련받았던 흔적은 없었지만 그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위로를 받았다.

근처 송어횃집에서 송어, 산천어회와 매운탕으로 맛있게 점심을 먹은 후 파로호전시관과 넓은 파로호를 관광하는 것으로 화천에서의 여행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출발하였다.

서울 도착 후 교대역 이남장에서 참석 못한 김형기를 오도록하여 설령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헤어졌다.

다음 모임은 11월 15일에 양재역 인근 신가에촌(한식집)에서, 모임의 월남 방문은 1월 중순으로 잠정 결정하고 11월 모임때 확정짓기로 하였다.

화천 방문에 차량을 지원해준 김종민 전우, 아침 김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 진창현 전우 두 분께 고마움을 전한다.

참석한 신정아와 오태식 회원이 집안 사정으로 빠졌다.

60여년 전 3년 동안 열심히 올랐던 오르막이었고 바람이 부는 초가을 날씨임에도 버스에서 내려 학교 돌담을 끼고 숲도랑길 입구까지 오르는데 모두들 숨이 차고 등에 땀이 베었다. 비가 많이 온 뒤라 샘터에는 물이 철철 흐르고, 등산로가 축축해 폭신했다.

대신동과 남향이 시원하게 내다보이는 전망데크에서 잠시 쉬고 다시 출발, 예상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중앙공원에 도착하여 에그타임을 가졌으며, 좀더 걷자는 바람도 있었는데 때마침 영도 가는 버스가 도착하여 점심식사자리로 예정한 자리돔물회집으로 이동하여 맛난 식사와 함께 정담을 나누고 헤어졌다.

◇참석자: 김길호 박신도 박인사 박재구 송유근 이건우 하영수

24회 동기회 = 8월 정기모임



8월 24일 삼송초밥에서 24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8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강종문 곽두희 구자웅 김경남 김도인 김도현 김인구 김정권 노상우 박태진 박홍규 신병현 안명수 안상수 오성환 유흥석 장민재 정영환 주

점권 최동우 최우림 최원주 최창림 황성훈

24회 산우애 = 9월 정기산행(제251차)



9월 2일 성지곡 어린이대공원 입구 ~ 성지곡 수원지 한바퀴 ~ 연지시장 교통부대지국밥 식당 코스로 9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안형수 대장의 안내로 안전한 산행을 실시하였으며 10월 산행은 10월 5일 남해 금산 독일마을 산행지로 결정 공지되었다.

◇참석자: 곽두희 김인구 안형수 이현우 조재진 최승국 최원주 태창업

24회 이사빌 = 8월 정기모임



8월 16일 플라틴 당구카페에서 8월 정기모임을 (기사 15면에 계속)

<기사 14면에 이어>

가졌다.

경기결과 - 우승:박인호, 준우승:김명배

◇참석자:곽두희 김경남 김명배 노상우 박인호
이재능 임덕철 장민재 최창림 태창업 황성훈

24회 이사빌 = 9월 정기모임



9월 20일 수영 힐링당구카페에서 9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경기결과 - 우승:한승철, 준우승:박인호

◇참석자:곽두희 김경남 김명배 김인구 김장현
노상우 박인호 배재일 손세영 이재능 임덕철 정기
준 최승국 최원주 태창업 한승철

24회 후라회 = 9월 모임



9월 11일 성문식당에서 9월 모임을 가졌다.

11월 11일(토) 11시부터 24회 후라 경부전이 개최
됨이 공지되었고 10시까지 경남고 운동장으로 모
이기로 하였다.

◇참석자:강동우 강종문 김경남 김도현 김명배
김인철 노상우 박홍규 장민재 장현동 최동우 태창
업 황성동

25회 동기회 = 9월 월례회



9월 15일 대야성갈비(서면)에서 9월 월례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11월 가을소풍(일본)을 위하여 나
눔투어 대표 곽창우(42회) 후배가 참석하여 여행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었다.

◇참석자:김동진 김옥권 김용수 김유환 김종현
노태호 박광용 박세철 박진상 배동명 서병수 서보민
여성조 옥동훈 윤태석 이상화 이신화 이태근 장승엽
전상태 정동문 최재환 최차환 하동문 한봉재 황철
◇찬조:김동진 김종현 박세철 박종찬 서병수

34회 동기회 = 동기회장배 당구대회



8월 19일 자갈치 어데고 당구장에서 동기회
장배 당구대회가 열렸다.

20명의 동기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기를 펼
쳤으며, 진행자인 옥재명 사무국장 외 4명의
동기들이 참관하여 모두 25명의 동기들이 즐
거운 하루를 보냈다.

경기 결과, 우승은 손병걸, 준우승은 이성엽
동기회장이 차지하여 트로피와 부상인 상품권을
획득하였다.

공동 3위는 황기윤, 김인철 동기가 차지하여
아쿠아픽 무선 치아세정기를 부상으로 받았으
며, 8강에 오른 문치호, 이상운, 박기태, 황병주

동기가 카베진과 애터미
돌돌이를 나눠 가졌다.

추첨을 통해 이상운 동
기가 협찬한 양치죽염이
선수들에게 지급되었으
며, 상품을 받지 못한 선
수 및 참관 동기들에게
는 동기회에서 준비한
히말라야 핑크소금과 고

급타올을 선물하여 서운한 마음을 위로하였
다.

뒤풀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 빠빠하게 진행을
하였음에도 선수들이 일사불란하게 협조 덕분
에 원활하게 시합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이성엽 동기회장, 당사모
회장인 황기윤 동기, 당사모 전 회장인 김두섭,
손병걸 동기와 일반회원인 권대식, 이상운 동
기가 협찬해 주었다.

또한 우승, 준우승자인 손병걸, 이성엽 동
기는 부상으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동기회 행사
에 써 달라고 다시 협찬하는 선행을 베풀었다.

25회 산우회 = 9월 정기산행



9월 10일 경주 남산(금오봉)으로 정기산행을 다
녀왔다.

◇참석자:김구화 노태호 서보민 옥동훈 이창훈
이태근 하동문 황근태



회에 참석하여 동호회 격려금(30만)을 전달하였다.

◇참석자:김규진 김옥권 김종현 박광용 여성조
옥동훈 이상영 이신화 이인구 이태근 장세훈 전상
태 정윤철 최차환

25회 신우회 = 9월 정기모임



9월 14일 그날엔생선구이집(남구못골로 95)에서
9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참석자:김덕우 안용운 예종복 예해덕 전섭태
정윤철 조경일 최현림1 최현림2

25회 당구회 = 9월 정기모임

9월 7일 청천당구장(조방)에서 9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김종현 동기회장, 여성조 사무국장이 당구

33당구회 = 정기모임



33당구회(회장 홍주성)는 9월 15일 남포동 다빈
치당구장에서 12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모임을 가졌
다. 친선게임을 이후 향후 모교 당구회 발전 방향에 관
해 논의하였다.

<기사 16면에 계속>

동기회 및 동오회

<기사 15면에 이어>

36회 울산동기회 = 번개모임



9월 11일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횃집에서 우리 수산물 소비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가을 전어와 농어회로 영양 보충을 하였다.

◇참석자(사진 오른쪽부터):제갈재환(회장) 심왕보 박성만(총무) 박철종 이원석 김진한 정영호 강태원(이상 8명) 이현(44회, 읍서버)

38회 동기회 = 정기모임



8월 30일 남포동 미정횃집에서 내년에 치룰 40주년 홈커밍데이행사 대비하여 2차 정기모임을 가졌다. 행사준비를 위해 각 반 대표를 선정하였으며, 행사는 모교방문 후 크루즈 1박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참석자 : 조석태(회장) 구동주(사무국장) 김경근(총동창회 사무국장) 김문철 박정민 박정호(찬주) 박태봉 박현수 서승헌 신동훈 오희진 이동희 이태훈 염증기(재경) 조명래 주재훈 차정호 한민득

40회 동기회 = 정기모임



8월 30일(수) 서면 삼겹살집(1차)과 호프집(2차)에서 22명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홀인원한 동기이야기, 기별야구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등으로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즐겁게 보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좋고 소중한다는 것을 새삼 느낀 하루였다.

41회 동기회 = 정기모임

9월 7일 거제횃집에서 9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동기회 발전 방향, 기별야구대진표 추첨을 잘해달라는 당부의 말, 동기회 산하 모임(골프회, 야구단, 등산부) 활동 알림과 동기회 참석 독려까지 적

42회 졸업 35주년 기념행사



위해 태종대 시타던커넥트호텔 룸 10개를 예약해 편안한 잠자리가 제공되었고, 이튿날 총동창회관을 둘러본 동기들은 민락동 전망대 횃집으로 이동해 자연산 회로 마무리 식사를 했다. 식사자리에서 박동식 준비위원장은 ‘친구42(사이)’ 건배사를 외치며 “경고 42회 친구들 사랑하며 우리 이렇게 죽을 때까지 원팀으로 살아가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경 동기들은 본부 임원진과 동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아쉽지만 40주년을 기대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42회 동기회(곽창우 회장)는 8월 5~6일 재경 동기들과 함께 졸업 3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재경 동기들을 포함 총 84명의 동기들이 기본회비와 찬조금을 납부했다.

졸업 30주년에 비해 참석인원이 다소 저조했지만 임원진이 예상했던 인원은 훌쩍 넘겼다.

재경 동기들은 8월 5일 KTX편으로 부산역에 도착해 임원진들의 환영을 받으며 미리 준비한 관광버스에 올라 정용중 동기 부회장이 운영하는 용호동 이가한우로 향했다.

김재용, 곽창우 공동 집행위원장은 “졸업 35주년을 맞아해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해 정말 즐겁다”며 “35주년을 넘어 40주년, 45주년, 50주년까지 계속 이어가자”고 덕담을 했다.

야구관람 시간에 맞춰 사직야구장으로 옮긴 동기들은 재학시절 응원가를 불렀던 추억을 떠올리며 롯데와 SSG 경기를 관람했다.

저녁식사를 위해 8회까지만 관람하고 손삼식 동기 부회장이 운영하는 대연동 맛집 ‘시절인연’으로 옮겨 코스요리와 와인으로 늦은 시간까지 달아오른 분위기를 이어 갔다. 재경 친구들을

위해 태종대 시타던커넥트호텔 룸 10개를 예약해 편안한 잠자리가 제공되었고, 이튿날 총동창회관을 둘러본 동기들은 민락동 전망대 횃집으로 이동해 자연산 회로 마무리 식사를 했다. 식사자리에서 박동식 준비위원장은 ‘친구42(사이)’ 건배사를 외치며 “경고 42회 친구들 사랑하며 우리 이렇게 죽을 때까지 원팀으로 살아가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경 동기들은 본부 임원진과 동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아쉽지만 40주년을 기대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42회 동기회는 이번 행사과정에서 모금된 돈 300만원을 총동창회에 경남중·고총동창회사랑기금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행사에 곽창우, 김재용 동기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강인호 동기가 공동집행부 위원장으로, 김현오, 정홍준, 문지성, 유경상 동기가 준비위원으로, 박기준, 구용회 동기가 재경 준비위원으로, 안정일 동기가 재무위원으로, 박동식 동기가 준비위원장으로 봉사하였다.



극적인 회의 진행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2월 7일 정기총회 및 송년회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참석자:김영철 최영준 전삼록 안광근 김인수 A 김인수B 류지섭 강병오 유수호 김동원 박익현 김정태 김신욱

◇찬조:김영철 회장 상품권 20만원, 최영준 수석 부회장 20만원

45회 동기회 = 8월 정기모임

8월 18일 3세관 남포점(56회 오민일 동문 운영) 8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8월 휴가 시즌이라 뛰어 넘고 9월에 하자는 동기들도 있었으나 동기회모임이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있었기에 변함이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많아서 진행이 되었고 변함없이 모여준 동기들이



라 정말 반가웠다.

◇참석자:구자삼 권우일 김경수 김상수 김상우 김성기 김정환 김종현 신상호 신태호 이동희 정형덕 조청래 조태성 황귀웅

49회 동기회 = 정기모임



8월 25일 사상 대한의 고기에서 동기모임을 가졌다.

서기석(26회) = KBS 이사회 신임 이사장 선임



헌법재판관을 지낸 서기석(26회) 동문이 KBS 이사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서 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1회 사

법시험에 합격했다. 청주·수원지법 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서 동문은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공론조사 위원회 연구 결과와 전문가·구성원 의견을 모아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태(40회) = 대한민국 헌정대상 의정종합대상 수상



조경태(40회·국회의원) 동문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종합대상’ 수상

자로 선정됐다. 법률연맹에 발표한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29일까지 최근 1년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 선별된 우수 위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기환(30회) = ‘그리스 해운의 해부’ 출간



이기환(30회·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그리스 해운의 해부』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총

6부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그리스를 이해하고 그리스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는 부분으로 그리스의 선주는 우리 조선업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점을 고찰하고 있다. 제2부는 오늘날 그리스가 세계 최고의 선복량을 보유한 해운강국으로 발전하는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있다. 제3부는 그리스 정부가 그리스 해운발전을 위해 취한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제4부는 오늘날 그리스 해운의 원동력이 되는 그리스의 보유 선대의 특징과 해운기업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5부는 그리스 해운기업의 서비스 수단이 되는 선박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제6부는 그리스 해운의 성공요인을 요약하고 있다.

박선호(37회) = ‘지구온난화의 미래’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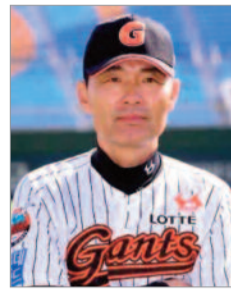


박선호(37회·해양기술 Min하우스 대표) 동문이 『지구온난화의 미래』를 출간하였다.

박 동문은 90년대 초부터 2015년까

지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협력사에서 근무했다. 뉴욕과 베네치아의 물막이벽 설치공사를 보고, 해수면상승이 예전과 달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염려를 갖고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환경 및 기후온난화 문제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원유시추장비 일을 하던 경험에서 배우고 알게 된 기후위기에 대처와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현재는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이종운(39회) = 롯데 감독대행 선임



이종운(39회) 동문이 롯데 자이언츠 감독대행에 선임됐다.

이 동문은 롯데와 인연이 오래된 인물이다. 경남고-동아대 출신 좌투좌타 외야수로 지난 1989년 롯데에 입단한 뒤 1997년까지 뛰었다.

특히 1992년에는 주전 우익수로 108경기 타율 3할 1푼 4리(401타수 126안타) 3홈런 57타점 21도루로 활약하며 롯데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기

여했다.

1998년 한화를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한 이 대행은 일본 지바 롯데 마린스 연수를 다녀온 뒤 2000~2002년 롯데 주루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2003~2013년 모교 경남고 감독을 지내며 11년간 아마추어 경험을 쌓았다. 특히 2008년 캐나다 애드먼턴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대표팀 감독을 맡아 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역대 KBO리그에서 1군 정식 사령탑이었던 지도자가 기존 감독이 되진 않은 뒤 남은 시즌을 이끌 감독대행을 맡는 건 이종운 감독대행이 3번째다.

정형기(41회) =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으로 임명



정형기(41회·영산대 자문교수) 동문이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에 임명됐다.

정 동문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4차산업혁명 정책팀장으로 활약하며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에 기여했다.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

회 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 정책과제 수립에 참여했다.

정 동문은 지난 17대, 18대, 20대, 21대 국회 보좌관, 국회 최초 온라인미디어 ‘국회ON’ 선임기자, 뉴데일리미디어그룹 빅데이터 전문 매체 ‘빅터뉴스’ 편집장,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전략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지역언론과 ‘어셈블리 인사이드’ 등 언론매체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정 동문은 경남도민 행복과 경남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변인, 싸워야 할 때 제대로 싸우되 말의 품격을 지키는 논평으로 기억되는 대변인이 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도영(44회) = ‘평범한 규칙’ 출간



정도영(44회) 동문이 『평범한 규칙』이란 제목의 책을 출간하고 9월 16일 오후 3시 부산서구가 족센터에

서 출간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정 동문은 저서를 통해 다수 대중의 행복이라는 법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회적 규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칙을 위한 규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규칙을 위한 규칙은 힘을 가진 사람의 권한을 줄이고 힘없는 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소수가 아닌 다수의 편에서 규정을 통해 승자독식과 능력주의라는 구시대 체제에서 탈피하고자 제안한다.

동창회보 기고는
yongma2007@hanmail.net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hrough the right Make the right.

부산시티호텔은 고객님의 여정에 동참합니다.
편안한 여행을 위해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른 서비스를 통해, 옳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회 예약 상담 : 세미나 / 송년모임(단체모임, 동창회 등)



BUSAN CITY HOTEL

Through the right, Make the right.

회장 **노상우** (24회)

47542 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촌로 19(연산동)

T 051)851-1122 F 051)853-1122

E contact@busancityhotel.com W busancityhotel.com